대학생의 가족학대경험, 가족스트레스와 행복의 관계

: 사회적 지지와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Relationship between Family Abuse Experience, Family Stress
and Happiness in University Students

: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Family Resilience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 수 김 민 경*

Dept.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

Professor : Kim, Min-Kyeong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find correlation between family abuse experience, family stress, social support, family resiliency and happiness in university students, and to explore the mediating role of social support and family resiliency between family abuse experience, family stress and happiness. The subjects were 295 university students. The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frequency analysis, Pearson's correlation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SPSS and AMOS. Instruments were Lee's(2010) Happiness Scale for university students, Strauss'(1988) CTSP(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 McCubbin's(1981) FILE(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 Yu's(2004) Family resiliency of Family Health Scale and Park's(1985) Social Support Scale.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amily abuse experienc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family stress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social support, family resiliency and happiness. Family stress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family resiliency. Social support and family resiliency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happiness. Family abuse experience positively influenced family stress and negatively influenced social support and family resiliency. Social support positively influenced family resiliency and happiness. Family stress negatively influenced family resiliency. Family resiliency positively influenced happiness. Thus education program and counseling should be provided to increase happiness and family resiliency, and social support should be provide to increase the quality of life for university students.

▲주요어(Key Words) : 가족학대경험(family abuse experience), 가족스트레스(family stress), 가족탄력성(family resiliency),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행복(happiness)

I. 서 론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꿈꾸며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 행복에 중요한 가치와 비중을 두고 있다. 대학생은 학교환경으로의 급격한 전환과정을 경험하고, 다양한 도전과 과제가 주어지는 가운데 고군분투하는 젊은 시절을 보내고 있으며, 이들도 자신의 꿈에 대한 기대와 행복을 추구하는데 있어 예외는 아니다.

* 주저자 · 교신저자 : 김민경 (E-mail : mkm35@nsu.ac.kr)

행복은 개인의 독특한 특성 뿐만아니라 청소년이 직접 몸담고 생활하는 가정환경, 학교환경, 지역사회환경과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전반에 걸쳐 있는 가치관, 사회제도와 정책, 법률, 복지서비스, 이데올로기, 문화 등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총체적 맥락하에 포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대학생이 행복을 느끼는데 있어 성장기와 그 이후 삶에 가족생활의 영향력은 간과될 수 없다. 청소년(김의철·박영신, 2004)과 모든 연령층(박영신·김의철, 2006)이 가정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로 화목한 가족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으며 청소년의 행복에 가정의 화목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허승연, 2009).

대학생의 행복에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인적 요인으로 사랑이나 이성관계(원준재, 2006), 자기효능감, 관계효능감(박영신 등, 2002), 개인목표달성(구재선·김의철, 2006), 대학생활적응요인(한덕웅 등, 1991), 감사(노혜숙·신현숙, 2008; 조진형 등, 2008; Emmons & Shelton, 2005; Perterson, 2006), 낙관성(원두리·김교현, 2006; Diener et al., 1999) 등이 작용하고 있다. 또한 가족적 요인으로 가족건강성(서하진·김정옥, 2009; Cicchetti & Toth, 1998), 가족유대나 친밀감(구재선·김의철, 2006), 부모양육태도(곽윤영, 2009) 등이, 사회적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구재선·김의철, 2006; 안지영, 2007; 허승연, 2009; Lyubomirsky et al., 2005) 등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행복에 개인적 요인뿐만아니라 가족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음을 볼 때 행복에 대한 다양한 요인들간의 관련성을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가족 및 사회적 요인과 행복과의 관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 요인 중 행복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가족학대경험은 가족학대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비경험 청소년들에 비해 우울과 불안 등의 내재화된 문제와 공격행동이나 비행행동 등의 외현화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이다(박병금, 2006; Kernic et al., 2003; Toth et al., 2002). 이들은 자살의 위험성이 더 높으며 자살시도를 더 많이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Garcia et al., 2002; Ryan et al., 2000). 이렇게 가정폭력경험은 개인의 정서적 측면 뿐만아니라 사회생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부모의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인 양육태도는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곽윤영, 2009)는 결과를 볼 때 가족내에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는 대학생에게 추후 삶의 긍정적 기반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간 불화, 가족의 고통, 가족사망, 관계의 부재나 상실 등 가족안에서의 스트레스는 강한 불행경험으로 여겼으나, 가정화목, 자녀성장, 경제적 수입, 휴식/휴가 등은 빈번한 행복경험으로 여겼다(구재선·김의철, 2006). 또한 학업,

직업,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여가생활과 같은 전형적인 경험들이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예측했다(Ryff, 1997). 즉 가족안에서 발생된 다양한 긍정적, 부정적 경험이 행복행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인간은 사회적 지지체계의 지지를 지각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을 누리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Cohen & Wills, 1985). 그중에서도 특히 타인과의 좋은 대인관계가 행복과 밀접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친구와의 친밀한 관계가 행복감을 높인다는 것은 일관성있는 연구결과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Cohen, 1988; Hotard et al., 1989). 즉 긍정적 대인관계를 유지할 때 더 행복을 느꼈고(구재선·김의철, 2006), 부모의 지지는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었고(안지영, 2007), 특히 친구의 지지는 주요한 사회적 지지원으로서 행복감의 중요출처가 되었다(허승연, 2009; Lyubomirsky et al., 2005). 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대학생이 행복을 느끼는데 있어 위로와 격려 등의 내용을 통해 행복에 중요한 결정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의 작용이 행복에 어떻게 작용되고 다른 요인이 사회적 지지를 향상시키는데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결점관점에서 입각하여 가족의 문제와 역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했던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최근에는 강점관점에서 가족의 회복력과 탄력성에 초점을 두고 가족적응을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은희·구정화, 2009; 정현주, 2008; McCubbin & McCubbin, 1993; Roosa, 2000)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가족탄력성이 가족적응을 돕는데 설득력이 있는 변수임을 입증하고 있다. 탄력성에 근거한 접근은 전통적인 결점관점의 접근에서 탈피하여 강점관점으로 시각을 갖고 가족이 실패하는 것보다는 성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며 가족들이 어떻게 스트레스와 역경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고 성공하는 지를 보려는 것이다(Luthar et al., 2000). 이러한 맥락에서 가족의 부정적 특성을 중재하여 행복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로 사회적 지지와 가족탄력성이 언급될 수 있다. 대학생의 가족탄력성이 높을 때 행복의 수준도 높게 나타나 가족건강성 요인 중 가족탄력성이 행복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서하진·김정옥, 2009). 탄력성은 부적응을 방지하고 대처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Cicchetti & Toth, 1998), 불안에 대한 민감성을 낮추고 삶에 대한 긍정적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Block & Kremen, 1996)고 하였다. 송영경(2006)은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문제상황에 불안해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신뢰감을 주며 대인관계에서나 사회적 측면에서 적응적인 사람들이라고 하여 행복향상에 탄력성이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가족스트레스와 사회적응의 관계에서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

가 나타났는데, 가족스트레스가 자폐성장애아동의 사회적응(이주희·정현주, 2009), 만성질환아(이은희·구정화, 2009; 이은희·손정민, 2008)의 가족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가족역량강화 정도가 높을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학생의 부모의 지원이 있는 경우 스트레스와 부정적 관계를 나타내었다(김의철 등, 2010). Lazarus와 Folkman(1984)은 사회적 지원이 스트레스감소를 위한 자원임을 밝히고 있어 사회적 지원은 스트레스만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 및 생활만족(박영신·김의철, 2008; 허지연·손은정, 2008) 등 다양한 상황맥락에서 큰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가족스트레스나 가족문제에 있어 가족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중재역할을 하여 이를 통해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행복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행복한 사람들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행복감을 유발하는 개별적인 환경의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Lu & Shih, 1997). 행복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요인과 주관적 안녕감의 상대적 영향력이 연구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주된 이유는 개인의 특성이나 환경요인 등 단일요인에만 치중했기 때문이었다(Lyubomirsky, 2007). 이러한 연구들은 대학생의 행복에 도달하는데 다양한 변인들 특히 가족과 사회환경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행복감을 결정하는지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대학생의 행복에 가족요인의 영향을 간과하였다. 특히 행복이라는 특성에 가족학대경험, 가족스트레스와 가족탄력성 등의 긍정적, 부정적 요인들이 행복에 작용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경로를 분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가족학대경험이나 가족스트레스와 같은 가족의 부정적 특성을 완화시키고 긍정적 요인을 강화시키는데 가족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대학생의 가족학대경험, 가족스트레스, 가족탄력성, 사회적 지지와 행복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고 이들의 관계를 파악해보며 궁극적으로 행복에 대한 가족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가족생활에 대한 적응향상과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둔다. 첫째, 대학생의 가족학대경험, 가족스트레스, 가족탄력성, 사회적 지지와 행복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대학생의 가족학대경험, 가족스트레스와 행복과의 관계에 가족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를 분석한다.

II. 선행연구고찰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대학생의 가족학대경험,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가족탄력성과 행복과의 관계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가족학대경험과 행복과의 관계를 보면 가족학대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비경험 청소년들에 비해 우울과 불안 등의 내재화된 문제와 공격행동이나 비행행동 등의 외현화문제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이다(박병금, 2006; Kernic et al., 2003; Toth et al., 2002). 이들은 자살의 위험성이 더 높으며 자살시도를 더 많이 한다(Garcia et al., 2002; Ryan et al., 2000)고 보고하고 있다. 자녀들의 정서적 문제와 관련하여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들의 정서적 문제를 대표하는 증상으로는 우울, 불안, 위축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쉽터에 거주하는 아동의 경우 더욱 심각하여 Hughes(1988)의 연구결과 쉽터에 거주하는 조사대상 55%가 심하게 위축된 상태였으며 약 10%는 자살위험이 있었다. 아동기의 신체적 학대가 성인기의 자아개념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고 추후 성인기의 분노와 공격성(Beriere & Runtz, 1990)과도 연관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가정폭력경험은 개인의 정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가족학대경험을 안겨주는 부모행동과 달리 바람직한 부모양육태도는 자녀의 건강한 정신구조형성에 결정적 기여를 하며(Bowlby, 1988), 자신과 타인에 대해 긍정적 지각을 하도록 돕는다(Pierce et al., 1996).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일수록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은 높았다(곽윤영, 2009). 반면 부모의 돌봄 양육태도가 자녀의 우울감 감소, 행복을 증진시켰지만 그 영향력이 7%로 매우 작은 변량효과를 나타내었고 부모의 과보호는 주관적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정은선·조한익, 2008)는 연구도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아동기 가족학대경험은 개인, 가족생활과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재협·최지현, 2005). 특히 부모자녀관계(Wisso & Roter, 1994; 오혜정, 2004 재인용)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과 파트너와의 관계가 미숙하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Carlson, 1990). 가정폭력경험이 배우자학대나 동료, 형제, 친밀한 상대에 대한 폭력과 연관된다는 결과도 제시되고 있는데 Daumas 등(1994)은 원가족에서의 가정폭력 목격과 경험은 다음세대 남성들의 가정폭력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여 가정폭력경험이 가족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수 있다.

사회적 지지와 가족탄력성의 관계를 보면 가족탄력성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가족탄력성의 하위요인에 사회적 지지를 포함시키고 있다(McCubbin et al., 1997; Walsh, 2002). 그러나 사회적 지지는 가족탄력성의 하위요인이기보다는 가족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이주희 · 정현주, 2009). 가족탄력성의 하위요인으로 사회적 지지는 가족탄력성을 설명해주는 요인의 하나로써 그 목적은 어디까지나 역량강화이다(이주희 · 정현주, 2009).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가족탄력성도 높게 나타났다(어용숙, 2010; 이선애, 2004). 사회적 지지는 역경에 대한 보상, 중재라는 소극적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역경 그 자체를 줄이는 적극적인 기능도 함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 지지와 행복과의 관계는 대학생의 친구 관계, 부모와의 관계가 행복의 하위영역 중 긍정적 정서, 삶의 만족도, 부정적 정서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와의 관계는 긍정적 정서,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고, 부모와의 관계는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부정적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할 때 행복수준이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구제선 · 김의철, 2006). 허승연(2009)은 가족지지는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또래지지가 많을수록 행복해 하여 청소년의 행복에 친구의 지지가 더 절대적임을 보여주었다. 전 생애를 거쳐서 친구는 중요한 사회적 지지원이 되며 행복감의 중요출처가 된다(Lyubomirsky et al., 2005). 친구관계만족은 행복과 상관이 높았으며 친구의 수, 만나는 빈도, 전화거는 빈도 등도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Veenhoven, 1994). 같은 맥락에서 친구들의 애정과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졌다(안지영, 2007). 반면 부모의 지원이 많을수록 직업성취도, 본인이 속하는 사회계층을 더 높게 평가하고 삶의 질과 주관적 안녕감을 높게 인식한다고 하였다(안지영, 2007).

가족탄력성과 행복의 관계를 살펴보면 McCubbin과 McCubbin(1993)은 뇌손상 환자가족의 적응을 설명하는 이론적 모델로서 가족탄력성모델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McCubbin 등(2002)은 소아암 환자부모 42명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실시하여 가족탄력성 요소들이 가족의 문제를 극복하고 가족구성원들이 적응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대학생의 가족탄력성이 높을 때 행복의 수준도 높게 나타나 가족건강성 요인 중 가족탄력성이 행복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언급되었다(서하진 · 김정옥, 2009). 탄력성은 부적응을 방지하고 대처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Cicchetti & Toth, 1998), 불안에 대한 민감성을 낮추고 삶에 대한 긍정적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Block & Kerenmen, 1996). 가족탄력성 중 신념체계, 조직유형은 불안정, 부정적 정서에 부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가족탄력성이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박진선 · 박은희, 2010). 여성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모든 스트레스영역과 가족탄력성은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여주었다(현은민, 2008). 유사한 연구로 가족탄력성개념을 자폐아동가족

에게 적용하여 가족탄력성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김혜림(2006)의 연구에서도 가족탄력성은 가족적응에 매우 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신념체계의 가족통제감, 조직패턴의 역할안정성, 의사소통과정의 의사소통과 정서반응이 가족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가족탄력성의 가족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가족스트레스, 가족탄력성과 사회적응과의 관계를 보면 가족스트레스가 가족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으나 가족스트레스가 있다하더라도 장애에 대한 가족의 태도가 긍정적이고 가족의 역할이 안정적일수록 장애아동가족이 잘 적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김미옥, 2001).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나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가족탄력성의 효과를 다룬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먼저 자폐성 장애아동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주희 · 정현주, 2009)에서 가족스트레스와 사회적응의 관계에서 가족탄력성의 중재효과가 나타나 가족역량강화 정도가 높을수록 가족스트레스가 자폐성장애아동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가족탄력성이 장애인형제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변인과 가족탄력성변인이 상호작용하여 장애인형제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정현주(2008)도 가족스트레스가 아동의 사회적응에 가족탄력성이 작용함을 보여주었다. 즉 가족탄력성은 자폐성아동가족의 스트레스가 자폐성장아동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이은희와 손정민(2008)의 연구에서 만성질환아 가족의 스트레스는 가족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가족탄력요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은희와 구정화(2009)는 가족탄력모델의 하위변인인 가족의 내구력, 의사소통유형 그리고 사회적 지지도에 관한 변인들이 가족적응과 유의미하게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만성질환아동을 둔 가족의 심리적 적응에 관한 가족탄력성의 모형검증에서 가족긴장도와 가족적응과의 관계에서 가족탄력성이 중재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화 · 정남운, 2004).

다음으로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응과의 관계를 보면 대학생의 부모의 지원이 있는 경우 스트레스와 부정적 관계를 나타내었다(김의철 등, 2010). Lazarus와 Folkman(1984)은 사회적 지원이 스트레스감소를 위한 자원임을 밝히고 있다. 사회적 지원은 스트레스만이 아니라 심리적 안녕감 및 생활만족(박영신 · 김의철, 2008; 허지연 · 손은정, 2008) 등 다양한 상황맥락에서 큰 영향력이 있다. 자폐성 장애아동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주희 · 정현주, 2009)에서도 가족스트레스와 사회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중재효과가 나타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가족스트레스가 자

폐성 장애아동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만성질환아 가족도 가족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높은 가족내구력과 긍정적 가족의사소통을 통해 사회적 지지가 높고,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가족적응이 높게 나타났다(이은희·손정민, 2008). 만성질환아동을 둔 가족의 심리적 적응에 관한 가족탄력성의 모형검증에서도 가족긴장도와 가족적응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중재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화·정남운, 2004). 전반적으로 사회적 지지, 가족탄력성 등은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특히 가족학대경험과 가족스트레스와 행복을 매개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의 가족학대경험, 가족스트레스, 가족탄력성, 사회적 지지와 행복과의 관계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경로를 파악하여 가족강화를 통한 대학생의 행복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대학생의 가족학대경험, 가족스트레스와 행복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조사의 표집대상은 서울, 경기, 충청도에 거주하는 대학생 295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표집은 각 대학의 전공과 학년에 무관하게 교양수업과 전공수업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조사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조사가 이루어졌다. 대상은 4년제 대학생을 중심으로 조사되었다.

본 조사를 위해 사용한 척도들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2개 대학에서 남녀대학생 각각 30명 씩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응답이 없는 문항, 신뢰도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문항 등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본조사는 2011년 5월 11일에서 6월 4일까지 이루어졌으며 대학생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기 전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응답이 이루어진 후 바로 수거하였다.

2. 측정도구

문항내용의 적합여부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전조사와 이들을 대상으로 문항내용의 이해도와 적절성을 평가한 후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상황과 잘 맞지 않은 문항을 수정하거나 제외하였으며 청소년전공교수 3인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를 검토받은 후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Cron-

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1) 행복

대학생의 행복감을 알아보기 위한 척도는 이수연(2010)이 개발한 대학생행복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전공만족(4문항), 사회성(4문항), 가족관계(4문항), 성취지향(4문항), 이성친구(3문항)로 구성하였다. 전공만족에는 '나는 지금의 전공공부를 하는 것이 즐겁다', '나는 전공선택에 만족한다' 등이며, 사회성에는 '나는 사람들과 있으면 행복하다', '나는 사람들과 많은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좋아한다' 등이며, 가족관계는 '나는 가족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소중하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가족을 이루고 싶다' 등이다. 또한 성취지향에서는 '나는 계획대로 일이 추진되는 것을 지향한다', '나는 목표한 일을 해냈을 때 희열을 느낀다' 등이며, 이성친구는 '나는 이성친구가 행복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성친구로부터 심리적 안정감을 느낀다' 등 총 19문항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측정도구의 Cronbach's α 값은 전공만족 .755, 사회성 .842, 가족관계 .874, 성취지향 .799, 이성친구 .885이며, 전체 행복은 .877로 나타났다.

2) 가족학대경험

대학생의 가족학대경험을 알아보기 위한 척도는 Straus(1988)의 CTSPC(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를 참고로 하여 정서학대(2문항), 신체학대(2문항), 방임(4문항) 등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기 피학대경험을 측정하는 도구로 청소년(김은경·이정숙, 2008; 박병금, 2006), 대학생(김연, 2009) 등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활용되었다. 내용으로는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모욕을 받은 적이 있다', '나에게 때려주겠다고 겁을 주거나 위협한 적이 있다', '나를 벽에 밀치거나 먹살을 잡거나 때리거나 또는 나에게 물건을 집어던진 적이 있다' 등으로 구성하였다.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학대경험이 많음을 의미하며 이 측정도구의 Cronbach's α 값은 정서학대는 .850, 신체학대는 .874, 방임은 .872이며, 전체 학대경험은 .918로 나타났다.

3) 가족스트레스

대학생의 가족스트레스는 McCubbin(1981)의 FILE(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의 척도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가족관계(6문항), 경제문제(5문항), 학교 및 가정갈등(6문항), 대인관계(6문항), 건강 및 상실(4문항) 등 총 2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가족관계에는 '가족모두 함께 할 시간이 부족하여 안타깝다', '나의 미래와 교육에 대해 걱정된다' 등이며, 경제문제에는 '나의 교육비지출이 많아 부담

스럽다', '저축을 생각했던 것 만큼 못해서 안타깝다' 등, 학교 및 가정갈등에서는 가정일, 학교일 등 해야 할 일이 많아 부담스럽다', '해야할 일이 많은데 시간이 부족하여 힘들다' 등이며, 대인관계에서는 '가까웠던 사람들과 관계가 멀어져서 안타깝다', '주변사람들(친구)에게서 괜한 오해를 받은 적이 있어 힘들었다' 등이며, 건강 및 상실에서는 '친구가 다치거나 아픈 적이 있어 걱정되었다', '부모님이 다치거나 아픈 적이 있어 걱정되었다' 등으로 구성하였다.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스트레스가 많음을 의미하며 이 측정도구의 Cronbach's α 값은 가족관계 .824, 경제문제 .826, 학교 및 가정갈등 .825, 대인관계 .821, 건강 및 상실 .826이며, 전체 가족스트레스는 .821로 나타났다.

4)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로 측정하였다. 즉 일상생활의 경험에 대해 기능적 속성을 중심으로 사회망 구성원 들을 통해 받거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지지에 대한 지각의 정도로 조작적인 정의를 하였다. 지지제공자를 부모, 친구 영역으로 나누고 각 출처별로 다차원의 지지정도를 물을 수 있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총 3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척도에 따라 측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정서적 지지에 '나의 일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 준다', 정보적 지지에는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충고해 준다', 물질적 지지에는 '땀가를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도와준다' 등이다. 각 문항은 5점 척도에 따라 측정되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한다.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 α 계수는 정서적 지지 .901, 정보적 지지 .872, 물질적 지지 .945이며, 전체 사회적 지지는 .874로 나타났다.

5) 가족탄력성

대학생의 가족탄력성을 알아보기 위한 척도는 유영주(2004)가 개발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 중에서 가족탄력성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서하진과 김정옥(2009)의 연구에서도 이 척도를 활용하여 Cronbach's α 값은 .914로 타당도를 검증받은 바 있다. 문항내용은 '우리가족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우리가족은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우리가족은 일상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있게 대응해 나갈 수 있다' 등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도 이 측정도구의 Cronbach's α 값은 .914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대학생의 가족학대경험,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가족탄력성과 행복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이들 변인들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추정하였다. 각 모형의 적합도와 변인 간 경로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이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2 검증과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였다. 여러 적합도 지수 중에서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와 RMSEA(Root Mean Square Error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이 지수들을 선택한 이유는 이 지수들이 표본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특히 TLI와 RMSEA의 경우 모형의 설명력 뿐 아니라 모형의 간명성도 고려하기 때문이다(홍세희, 2000). 모든 모수치들은 최대우도법 절차에 의해 산출되었으며 잠재변인으로 사용되는 모든 측정변수는 요인분석에 따른 부하량에 따라 항목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분석에 앞서 각 변수들이 정규분포를 이루는지 살펴보기 위해 첨도와 왜도를 살펴본 결과,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자료는 PASW 18.0 프로그램과 AMOS 6.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

본 조사에 참여한 조사대상 대학생 295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생의 성별은 남학생이 45.9%, 여학생이 54.1%로 나타났으며 대상자들이 생각하는 경제수준은 중류층이 6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하류층 22.0%, 상류층 15.0%이고 종교는 기독교가 37.9%로 가장 많고 종교없음도 43.1%로 나타났다. 연령은 대학생인 관계로 24세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 변수들의 상관관계

대학생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수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가족학대경험은 가족스트레스와 유의한 정적 관계($r=.279, p<.001$)를, 사회적 지지($r=-.304, p<.001$), 가족탄력성($r=-.283, p<.001$), 행복($r=-.261, p<.001$)과는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였다. 즉 가족학대경험을 많이 하였을 경우 가족스트레스를 높게 인지하고, 사회적 지지는 많이 받지 못하며, 가족탄력성도 낮으며, 행복도 높게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 가족탄력성,

<표 1>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1. 가족학대경험	1.000				
2. 가족스트레스	.279***	1.000			
3. 사회적 지지	-.304***	-.025	1.000		
4. 가족탄력성	-.283***	-.137*	.613***	1.000	
5. 행복	-.261***	-.058	.657***	.630***	1.000
평균	1.698	2.980	3.350	3.542	3.465
표준편차	.785	.601	.659	.756	.507

*p<.05, ***p<.001

행복과 부적 관계를 나타냈는데 가족탄력성($r=-.137, p<.001$)과 낮은 유의미한 부적관계를 보여 가족스트레스를 경험할수록 가족탄력성은 낮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가족탄력성($r=.613, p<.001$)과 행복($r=.657, p<.001$)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여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가족탄력성과 행복을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탄력성은 행복($r=.630, p<.001$)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나타내 가족탄력성이 높을수록 행복을 더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가족학대경험이 가족스트레스보다 사회적 지지, 가족탄력성과 행복과 더 밀접한 관련성 보여주고 있으며 이들 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가족탄력성과 행복과도 관련성이 높게 나타나 가족학대경험과 가족스트레스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사회적 지지를 통해 가족탄력성과 행복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족탄력성도 사회적 지지와 유사하게 가족학대경험, 가족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를 통해 행복을 경험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변인들(1점-5점)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가족학대경험은 1.698로 중간점수보다 낮게 나타났다. 가족스트레스는 2.980으로 중간점수 3점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거의 중간점수를 보여 가족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사회적 지지, 가족탄력성, 행복은 3점보다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비교적 많이 받고 있으며, 가족간유대가 좋고 회복력이 좋은 것을 의미하는 가족탄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은 행복에서도 높지는 않으나 전반적으로 행복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모형검증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대학생의 가족학대경험,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가족탄력성과 행복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본 모형을 추정하고 분석하였다(<그림 1> 참조).

대학생의 가족학대경험,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가족

탄력성과 행복과의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인과모형을 살펴 보았으며 기본 모형의 적합도를 보았을 때 모형의 RMSEA가 .037이고 TLI값과 CFI값이 .914, .917로 모형의 적합성이 좋다고 할 수 있다($\chi^2=4.538, df=1$, <표 3> 참조). 가족학대경험이 가족스트레스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가족학대경험에는 사회적 지지와 가족탄력성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학대경험이 많을수록 가족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회적 지지는 더 취약하며 가족탄력성도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가족탄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스트레스는 가족탄력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가족탄력성이 높고, 가족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가족탄력성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행복에는 사회적 지지와 가족탄력성이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적 지지와 가족탄력성이 높을수록 행복경험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표 2> 참조). 종합해보면 가족학대경험은 가족스트레스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만 사회적 지지와 가족탄력성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안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데 가족학대경험은 방해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사회적 지지는 대학생의 가족탄력성과 행복을 증가시키는데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가족탄력성도 대학생이 행복을 경험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가족학대와 가족스트레스를 경험하여도 사회적 지지와 가족탄력성을 통해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 하겠다.

이 모형에서 가족학대경험이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가족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지지가 가족탄력성과 행복에, 가족탄력성은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가족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지에, 가족학대경험과 가족스트레스가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직접적인 경로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모형의 적합도를 <표 3>에서 분석한 결과, 기본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변인들간의 관계가

<표 2> 가족학대경험, 가족스트레스, 사회적지지, 가족탄력성과 행복의 관계 모형

	표준화 경로계수	비표준화 경로계수	S.E	C.R
가족학대경험 → 가족스트레스	.279***	.213	.043	4.975
가족학대경험 → 사회적 지지	-.321***	-.270	.048	-5.568
가족스트레스 → 사회적 지지	.064	.070	.063	1.112
가족학대경험 → 가족탄력성	-.077*	-.074	.048	-1.548
사회적 지지 → 가족탄력성	.588***	.674	.055	12.327
가족스트레스 → 가족탄력성	-.101**	-.127	.059	-2.139
사회적 지지 → 행복	.418***	.321	.041	7.934
가족탄력성 → 행복	.368***	.247	.035	7.035
가족학대경험 → 행복	-.033	-.021	.029	-.740
가족스트레스 → 행복	.014	.012	.036	.322

*p<.05, **p<.01, ***p<.001

<표 3> 모형의 적합도

모 형	χ^2	df	p	RMSEA	TLI	CFI
기본모형	4.538	1	.000	.037	.914	.917
수정모형	1.798	3	.000	.000	.987	.992

<그림 1> 기본모형: 가족학대경험,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가족탄력성과 행복과의 관계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변인들의 관계를 수정한 모형의 적합도는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수정모형의 경로관계를 적용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각 경로에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경로를 제외하고 수정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적합도를 보았을 때 수정모형의 RMSEA가 .000이고 TLI값과 CFI값이 .987,

.992로 모형의 적합성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1.798$, $df=3$, <표 3> 참조). 가족학대경험은 가족스트레스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 가족학대경험이 높을수록 가족스트레스도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학대경험이 낮을수록 사회적 지지와 가족탄력성은 높게 나타나 가족학대경험과 같은 부정적 경험은 사회적 지지와 가족탄력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표 4> 가족학대경험, 가족스트레스, 사회적지지, 가족탄력성과 행복의 관계 수정모형

	표준화 경로계수	비표준화 경로계수	S.E	C.R
가족학대경험 → 가족스트레스	.279***	.213	.043	4.975
가족학대경험 → 사회적 지지	-.304***	-.255	.047	-5.464
가족학대경험 → 가족탄력성	-.077*	-.074	.048	-1.557
사회적 지지 → 가족탄력성	.586***	.674	.055	12.353
가족스트레스 → 가족탄력성	-.101**	-.127	.059	-2.143
사회적 지지 → 행복	.426***	.328	.040	8.236
가족탄력성 → 행복	.371***	.249	.035	7.188

*p<.05, **p<.01, ***p<.001

<표 5> 행복에 대한 예측변인들의 효과

기준변인	예측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SMC
가족스트레스	가족학대경험	.279		.279	.078
사회적 지지	가족학대경험	-.304		-.304	.092
가족탄력성	가족학대경험	-.077	-.206	-.282	.400
	가족스트레스	-.101		-.101	
	사회적 지지	.586		.586	
행복	가족학대경험		-.234	-.234	.514
	가족스트레스		-.037	-.037	
	사회적 지지	.426	.217	.643	
	가족탄력성	.371		.371

<그림 2> 수정모형: 가족학대경험,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가족탄력성과 행복과의 관계

사회적 지지와 가족스트레스는 가족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가족탄력성은 높게 나타나고, 가족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가족탄력성은 낮게 나타

났다. 사회적 지지와 가족탄력성은 행복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회적 지지와 가족탄력성이 높을수록 대학생이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표 4> 참조).

종합해보면 가족학대경험과 가족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와 가족탄력성을 통해 행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에 대한 예측변인들의 효과는 <표 5>와 같다.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가족학대경험의 설명량은 7.8%였으며 사회적 지지에 대한 가족학대경험의 설명량은 9.2%로 나타났으며 가족탄력성에 대한 가족학대경험,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가 미치는 설명량은 40.0%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학대경험은 가족탄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가족스트레스나 사회적 지지를 통해 행복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에는 가족학대경험,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가족탄력성이 미치는 설명량은 51.4%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지지는 행복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만 가족탄력성을 통해서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복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행복에 가족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사회적 지지와 가족탄력성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가족학대경험,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가족탄력성과 행복과의 관계를 파악해보고 궁극적으로 가족학대경험, 가족스트레스와 행복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 충청권에 있는 대학생 295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자료분석은 기술통계, 상관관계, 구조모형방정식을 통한 경로분석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가족학대경험은 가족스트레스와 유의한 정적관계가 나타났으나 사회적 지지, 가족탄력성과 행복과는 유의한 부적 관계가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지지와 가족탄력성은 행복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나타내 행복증가에 사회적 지지와 가족탄력성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스트레스는 가족탄력성과 유의한 부적관계가 있어 가족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가족탄력성은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나 사회적 지지는 가족탄력성과 높은 유의한 정적관계를 나타내 가족탄력성을 향상시키는데 사회적 지지의 역할이 작용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가족탄력성은 대학생이 행복을 느끼는데 있어 가족학대경험과 가족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행복에 가족학대경험과 가족스트레스가 부정적 영향을, 사회적 지지와 가족탄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가족학대경험과 가족스트레스는 행복에 유의한 직

접적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사회적 지지와 가족탄력성을 통해 행복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학대경험은 사회적 지지를 통해 행복에 영향을 주고 있어 사회적 지지는 대학생이 행복을 느끼는데 있어 가족학대경험의 영향력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지지와 친구지지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의 행복에 영향을 준다(허승연, 2009; Lyubomirsky et al., 2005)는 연구와 가정폭력경험이 개인의 정서적 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병규, 2006; Kernic et al., 2003; Toth et al., 2002)는 결과들을 볼 때 가족학대경험 자체가 삶의 질과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사회적 지지라는 중재요인이 존재한다면 이를 상쇄시키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지지가 행복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가족스트레스는 가족탄력성을 통해 행복에 영향을 주고 있어 가족탄력성이 가족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행복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가족스트레스와 사회적응의 관계에서 가족탄력성의 중재효과가 나타나 가족역량강화 정도가 높을수록 가족스트레스가 자폐성 장애 아동의 사회적응(이주희·정현주, 2009), 만성질환아의 가족적응(이은희·구정화, 2009; 이은희·손정민, 2008)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감소한다는 결과들을 토대로 볼 때 가족탄력성이 가족스트레스를 매개해주는 중요요인이며 가족스트레스를 완화시켜 행복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대학생이 가족에서 가족스트레스를 경험하더라도 가족탄력성이 존재할 때는 자신이 행복을 느낄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가족스트레스가 대학생자신의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가족내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조절과 해결의지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즉 가족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가족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때 대학생의 행복도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가족의 강점이자 자원인 가족탄력성이 담보된다면 학교와 사회의 장에서 이들의 건강성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생의 가족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가족과의 유대와 믿음,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 개입이 있어야 하겠다.

셋째, 가족탄력성에 가족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가족학대경험은 가족스트레스를 통해, 사회적 지지를 통해 가족탄력성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보여주었다. 즉 가족학대경험은 사회적 지지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지지를 통해 가족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반면 가족학대경험은 가족스트레스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어 가족학대경험이 가족스트레스를 더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결과적으로 가족탄력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즉 가족탄력성에 가족학대경험은 가

족스트레스를 통해 가족탄력성에 부정적 영향을, 사회적 지지를 통해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가족탄력성을 설명해주고,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가족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다(어용숙, 2010; 이주희·정현주, 2009)는 결과들에서 제시한 것처럼 가족탄력성에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가족탄력성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보다 풍요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가족스트레스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 이전에 가족내에서 어린 시절부터 학대로부터 보호되고 현재 대학생자녀가 갖는 학업과 취업, 학비마련 등의 어려움을 안고 있는 상황에 대한 배려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가족학대경험이나 가족스트레스의 완충장치이자 가족탄력성을 향상시키는 기여자로, 이를 위한 대학생의 사회적 관계향상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개입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넷째, 가족학대경험은 가족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학대경험 자체는 부모로부터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결과로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고 그 결과 가족내 적응도가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가족학대경험을 갖는 하더라도 충분한 사회적 지지가 주어진다면 부정적 경험으로부터 회복과 탈피에 도움이 될 것으로 해석된다. 가족학대경험에 대한 부정적 결과들은 많은 선행연구들(박병금, 2006; Garcia et al., 2002; Kernic et al., 2003; Ryan et al., 2000; Toth et al., 2002)에서 대학생의 가족학대경험이 내외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과들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가족내에서 부모의 긍정적 자녀양육태도와 경험제공은 대학생에게 추후 개인과 가족, 사회속에서 삶의 긍정적 기반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녀 개인의 행복과 건강한 가족생활을 위해서는 가족환경에서부터 폭력의 무가치함과 치명적 결과에 대한 경종이 울려져야 하겠다. 즉 학대경험 대학생에게는 이후 인생여정에 나아가 세대전이를 통해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볼 때 이에 대한 장단기적 상담과 치유프로그램도 시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결점관점에서 입각하여 가족의 문제와 역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했던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최근에는 강점관점에서 가족의 회복력과 탄력성에 초점을 두고 행복을 설명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가족탄력성과 사회적 지지 등의 긍정적 요인들이 행복을 설명하는데 설득력이 있는 변수임을 입증하고 있다. 탄력성에 근거한 접근은 전통적인 결점관점의 접근에서 탈피하여 강점관점으로 시각을 갖고 가족이 실패하는 것보다는 성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며 가족들이 어떻게 스트레스와 역경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고 성공하는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본 연구는 가족학대경험,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가족탄력성과 행복과의 관계에 있어 등 개인, 가족, 사회적 특성까지를 포함하여 개인의 사회적응에 생태체계적 입장을 검증하였으며 가족학대경험과 가족스트레스와 행복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통해 이들 관계를 파악하였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학생의 행복을 위한 개인과 가족, 사회환경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시행과 지원의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제한점으로는 일부지역만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일반화하기엔 무리가 있으며 본 연구가 일반화되고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대학생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개인요인 뿐만 아니라 문화적 요인까지를 포함시키지 않아 더 포괄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이 후속연구의 과제이자 방향일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곽윤영(2009). 부모의 양육태도 및 대학생의 경제적 자립도가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재선·김의철(2006). 한국인의 행복경험에 대한 토착문화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2), 77-100.
- 기화·정남운(2004). 만성질환 아동을 둔 가족의 심리적 적응에 관한 가족탄력성 모형의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1), 1-24.
- 김미옥(2001). 장애아동 가족의 적응에 대한 가족탄력성(family Resilience)의 영향력 분석. **한국가족복지학**, 8, 9-40.
- 김연(2009).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부모양육행동 및 학대경험과 기질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4), 161-173.
- 김은경·이정숙(2008). 아동기 학대경험과 청소년의 자살생각간의 관계: 수치심과 친구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6), 123-134.
- 김의철·박영신(2004). 청소년과 성인의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학적 분석: 가정, 학교, 직장, 여가생활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4), 973-1002.
- 김의철·박영신·김의연·TsudaAkira·Horiuchi Saroshi(2010). 스트레스와 우울에 대한 부모의 사회적 지원, 어려움극복효능감, 스트레스 관리행동의 영향: 초, 중, 대학생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6(2), 197-219.
- 김재협·최지현(2005). 여대생의 아동학대경험이 정신건강 및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 10(2), 27-47.
- 김혜림(2006). **자폐아동 가족탄력성과 가족적응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혜숙 · 신현숙(2008). 청소년의 감사성향과 심리적 안녕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5(2), 147-168.
- 박병급(2006).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관한 생태체계요인 탐색**.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영신 · 김의철(2008). 한국사회와 개인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탐구: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와 낮추는 요소에 대한 세대별 지각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1), 161-195.
- 박영신 · 김의철(2008).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 자녀에 대한 신뢰 및 자기효능감이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4), 71-101.
- 박영신 · 김의철 · 민병기(2002). 부모의 사회적 지원,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 변화에 대한 종단자료 분석과 생활만족도 형성에 대한 구조관계 분석. **교육심리연구**, 16(2), 63-92.
- 박지원(1985). **사회적 지지 척도개발에 관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진선 · 박은희(2010). 유아 · 가족배경변인과 가족탄력성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4(1), 203-225.
- 서하진 · 김정옥(2009).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자아존중감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3), 141-178.
- 송영경(2006).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 및 학교적응**.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지영(2007). **인간관계,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중학생과 그 부모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어용숙(2010). 장애아동 주양육자의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지지가 가족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정서 · 행동장애연구**, 26(1), 209-236.
- 오혜정(2004). **아동기 학대경험과 부부폭력노출경험이 성장 후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영주(2004). 가족강화를 위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개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119-151.
- 원두리 · 김교현(2006). 심리적 웰빙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웰빙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한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1), 125-145.
- 원준재(2006). 전국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의 상담영역별 운영 실태 및 발전방안-개인상담을 중심으로. **동계 학술대회 자료집**, 35-51.
- 이선애(2004). **만성질환아동 가족의 가족탄력성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수연(2010). **대학생의 행복척도 개발 및 구인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7(2), 107-122.
- 이은희 · 구정화(2009). 가족탄력성이 한 부모가족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1), 61-80.
- 이은희 · 손정민(2008). 가족탄력성이 만성질환아 가족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연구. **한국아동복지학**, 27, 95-120.
- 이주희 · 정현주(2009). 가족스트레스가 자폐성아동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0(4), 15-31.
- 정은선 · 조한익(2008). 부모의 양육태도가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강인성의 매개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209-227.
- 정현주(2008). 자폐아동 가족의 스트레스와 가족적응이 자폐아동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경로분석-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가족복지학**, 13(3), 89-110.
- 조진형 · 김정미 · 김동원 · 김정희(2008). 감사일지 작성이 주관적 안녕감, 자기존중감, 자기효능감, 감사성향 및 신체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효과. **담론**201, 11(2), 75-101.
- 한덕웅 · 전검구 · 이창호(1991). 한국대학의 생활환경변화와 대학생생활적응. **학생지도연구**, 9, 5-17.
- 허승연(2009).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지연 · 손은정(2008). 청년기와 중년기 집단에서의 삶의 의미와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 자기효능감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인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340-341. 8월 20-22일. 서울: 육군사관학교.
- 현은민(2008). 스트레스와 가족탄력성이 여성한부모가족의 적응에 미치는 효과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3(4), 59-84.
- 홍세희(2000). 구조 방정식 모형에 있어서 적합도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 심리학회지: 임상**, 19, 161-177.
- Beriére, J. & Runtz, M.(1990). Differential adult symptomatology associated with three typed of child abuse histories. *Child Abuse & Neglect*, 12, 331-341.
- Block, J. & Kremen, A. M.(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e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Bowlby, J.(1988). Development psychiatry comes of ag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5, 1-10.
- Carlson, B. E.(1990). Adolescent observers of marital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5, 285-299.
- Cicchetti, D. & Toth, S. L.(1998). The development of de-

- 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merican Psychologist*, 53(2), 221-241.
- Cohen, S.(1988). Psychological models of the role of social support in the etiology of physical disease. *Health Psychology*, 7, 269-297.
- Cohen, S. & Wills, T.A.(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301-357.
- Diener, E., Suh, E. M., Lucas, R., & Smith, H.(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 Doumas, D., Margolin, G., & John, R. S.(1994).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aggression across three generations. *Journal of Family Aggression*, 9(2), 135-152.
- Emmons, R. A. & Shelton, C. M.(2005). Gratitude and the science of positive psychology. In C. R. Snyder & S.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 459-471). N.Y.: Oxford University Press.
- Garcia, J., Adams, J., Friedman, L., & East, P.(2002). Links between past abuse, suicide ideation, and sexual orientation among San Diego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51(1), 9-15.
- Hotard, S. R., McFatter, R. M., McWhirter, R. M., & Stegall, M. E.(1989). Interactive effects of extraversion, neuroticism and social relationship on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321-331.
- Hughes, H. M.(1988).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orrelates of family violence in child witness and victi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18, 77-90.
- Kernic, M. A., Wolf, M. E., Holt, V. L., McKnight, B., Huebner, C. E., & Rivara, F. P.(2003). Behavioral problems among children whose mothers are abused by an intimate partner. *Child Abuse and Neglect*, 27(11), 1231-1246.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Y.: Springer-Verlag.
- Lu, L. & Shih, J. B.(1997). Personality and happiness : Is mental health a mediato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2(2), 249-256.
- Luthar, S. S., Cicchetti, D., & Becker, B. E.(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 543-562.
- Lyubomirsky, S., King, L., & Diener, E.(2005). The benefits of frequent positive affect: Does happiness lead to success? *Psychological Bulletin*, 131, 803-855.
- Lyubomirsky, S.(2007). *The how of happiness: A scientific approach to getting the life you want*. N.Y.: The Penguin Press.
- McCubbin, H. I.(1981).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FILE)*. St. Paul Minnesota: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McCubbin, H. I., McCubbin, M. A., Thompson, A. I., Han, S. Y., & Allen, C. T.(1997). Families under stress: What makes them resilient. *Journal of Family Consumer Science*, 89(3), 2-11.
- McCubbin, M., Balling, K., Possin, P., Friedrich, S., & Bryne, B.(2002). Family resiliency in childhood cancer. *Family Relations*, 51(2), 103-111.
- McCubbin, M. A. & McCubbin, H. I.(1993). Families coping with illness: The resiliency model of family stress, adjustment, and adaptation. In C. B. Danielson, B. H. Bissell and P. W. Fry: *Family, health and illness: Perspective on coping and intervention*. St. Louis: Mosby-Yrar Book, Inc.
- Peterson, C.(2006). *A primer in positive psychology*. N.Y.: Oxford University Press.
- Pierce, G. R., Sarason, B. R., & Sarason, I. G.(1996). *Handbook of social support and the family*.(pp.3-23). N.Y.: Pleum.
- Roosa, M. W.(2000). Some thoughts about resilience versus positive development, mail effects versus workshops.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40, 55-68.
- Ryan, K. D., Kilmer, R. P., Cauce, A. M., Watanabe, H., & Hoyt, D. R.(2000).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child maltreatment in homeless adolescents: Untangling the unique effects of maltreatment and family environment. *Child Abuse & Neglect*, 24(3), 333-352.
- Ryff, C. D.(1997). Experience and well-being: Explorations on domains of life and how they matter.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0, 193-206.
- Strauss, M. A.(1998). Identification of child maltreatment with the 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data for a national sample of American parents. *Child Abuse & Neglect*, 22, 249-270.
- Toth, S. L., Cicchetti, D., & Kim, J.(2002). Relations among children's perceptions of maternal behavior, attributional styles and behavioral symptomatology in

maltreated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0(5), 487-501.

Veenhoven, R.(1991). Questions on happiness: Classical topics, modern answers, blind spots, In F. Strack, M. Argyle, & Schwarz(Ed), *Subjective well-being: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pp. 7-26). Oxford: Pergamon Press.

Walsh, F.(2002). A family resilience framework: Innovative practice applicatoions. *Family Relations*, 51(2), 130-137.

- ☐ 접수 일 : 2011년 09월 15일
- ☐ 심사 일 : 2011년 09월 30일
- ☐ 게재확정일 : 2011년 11월 23일